수불 스님 "자승 스님이 출마 만류" VS 조계종 "수불 스님 먼저 도움 요청"

대중공양비 제공 보도 해명 기자회견
수불 스님 "20년 전부터 해온 관행"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선거후보자로 예상되는 수불 스님이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선거개입 정황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수불 스님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7월 1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만남서 나눈 대화 일부를 언급했다. 수불 스님은 "자승 스님이 나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 선거는 단일후보를 추대해 치르고, 다음 선거에 나오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상당히 불쾌했다. 총무원장이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반드시 중립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임기가 끝나) 물러나는 원장이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모두가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을 종도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불 스님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와 관련해 중립을 지켜야하는 종단 수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불 스님 주장에 대해 조계종 홍보국장 효신 스님은 "수불 스님이 먼저 원장스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원장스님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초 기자회견은 〈법보신문〉이 이날 보도한 '총무원장 유력후보 A스님 금품살포 의혹' 기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해 마련됐다.

수불 스님은 기자회견서 "내가 A스님이다. 하지만 승가의 전통처럼 이어져온 대중공양을 문제 삼는다면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몇몇 교구에서 공양금을 문제 삼아 기득권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불법 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작태"라며 "소납은 지난 20년 이상 안거철마다 대중공양과 산중공양을 해왔다. 총무원장 선거를 기회로 문제 삼는 건 향후 후보자격을 원천 봉쇄하려는 종단 기득권층 작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자승 스님이 선거 중립만 지켜준다면 좋겠다. 뜻있는 사부대중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종단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 단 한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총무원장 선거 출마의지를 드러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법 제38조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재산상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그럼 군포교기금도 매달 내고 있는데 내지 말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스님 의지와 다르게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의혹을 풀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석가탄신일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내년부터 공휴일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8월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변경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불교계는 한글화 추세와 더불어 '석가'라는 단어가 고대인도 특정 씨족을 지칭하는 '샤카족'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975년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지난 2월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면서 명칭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총무원장 유력 후보 공양금 안받겠다"

교구본사주지협, 7월 13일 회의서 결의문 채택

후보들의 공양금 돌려주기로
부당한 선거운동 행위 배척
"10월 원장 선거를 청정하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월 13일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오는 10월 열릴 총무원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호성)는 7월 13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개최한 제51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는 10월에 열릴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키로 의견을 모았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종단 발전과 화합의 반석이 돼야 할 소중한 기회가 부조리한 폐단으로 얼룩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치는 행위를 척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스님들은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 배척 △입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제공하는 공양금과 선물에 대해 거절할 것 △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선거문화 조성 앞장 등을 다짐했다.

이어 "이는 공명선거를 이루는 종법상의 근거이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선거 문화의 상식"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 등 집행부 역시 교구본사 주지들의 의지에 적극 협조해 공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공양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은 "뒷거래가 있는 선거는 바른 인재 등용에 문제가 된다. 총무원장 당선인은 뒷거래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불교발전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선거 공양금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혹시 이 가운데 대중 공양금을 받은 분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며 "오늘 이 부분도 결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공양금을 거절할 뿐 아니라 돌려 줄 것을 약속했다.

회장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이번에는 주지 스님들의 결의로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부조리한 폐단을 척결하고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51차 회의에는 18명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가 이어졌다. 종무보고는 '순천 선암사 등기말소 소송 경과 보고' '제54기(2018년 봄 수계) 사미·사미나 수계 교육 일정 조정' '출가지도법사 활성화를 위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개정 추진' 등이 보고됐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신심 복원 과제… 공동체·탈권위·공공성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시민단체 초청좌담회

신심 냉각돼도 절은 유지
악화되기 전 해결책 내야
모범적 공동체 이끌어내
본보기 되도록 활용할 때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시민단체 초청좌담회 참가자들이 각자 견해를 밝히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심 복원'이 떠올랐다. 여기에는 불교 조직·단체의 공동체성과 탈권위,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7월 1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서 시민단체 초청 좌담회 '백년대계에 말하다'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향민 인드라망연구소장·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5분간 발제 후 공동토론을 통해 잃어버린 불자들의 신심을 되찾는 것이 한국불교 미래를 이어갈 열쇠라고 뜻을 모았다. 특히 공공성을 갖춘 기초공동체 복원과 탈권위적인 모습 등이 불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유정길 위원장은 "현재 불교는 개인의 내적 신심이 냉각되고 있음에도 사찰이 유지된다. 이는 사찰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위해 불자들의 신심을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웅기 위원장은 "기초공동체 복원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를 매개로 여러 사람이 공공성과 평화를 갖춘다면 대중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젊은 세대에게 기성의 질서를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종교성 복원은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 이제는 강요 아닌 현대적 권위를 갖출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향민 소장은 근대성에 기초한 대안 마련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이해관계로 인해 삶이 재조직돼왔다. 하지만 인간은 공동의 목표나 꿈을 갖고 함께할 때 현실의 차이를 감싸면서 나아갈 수 있다"며 "방안 마련은 근대성에 기초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발전'이라는 표현이 '순환'으로 변화하듯 현상을 평가하는 잣대에 맞춰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원 위원장도 보여주기식 대안 마련보다 성공적인 공동체 양성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스스로 행할 생각이 없는 대안은 마련하지 않는 게 좋다. 교단이 공동체적 삶에 대한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포교"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성권 회장은 "UN미래보고서 예측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계속 성장하고 불교는 차츰 시들며 개신교는 뒤처진다고 한다. 이 같은 예측은 이슬람이 개인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라며 "불교도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산하단체, 시민단체 등의 정체성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총무원을 공무원 조직처럼 볼 뿐 종교조직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신심이 복원되지 않은 채 복지단체나 사회단체로 전락한다면 의미가 없다. 껍데기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봉행

우각당 도일대선사 열반 영면 49재 천도법회

근세에 선지식이신 위대한 스승 우각당 도일대선사께서 불기 2561년 윤 5월 14일 9시경 입적하셨습니다. 경허선사의 선맥을 이은 포산선사를 은사로 해인사 백련암에서 1942년도 득도하여 법납 75세 일기로 타계하시어 문중에서 49재 천도법회를 봉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각당 도일선사 문도회 일동 정례 합장

증 명 : 영공도선 대선사

◆ 수법상좌

문도고문 : 정암큰스님, 현불큰스님, 지산큰스님

문도회장 : 석능인

문도부회장 : 석성불, 석도안, 석진각, 석법장

문도회원 : 범아, 효천, 법장, 원각, 지선, 혜안, 동산, 석문, 덕암, 상호, 무아, 법성, 혜암, 지우, 심공, 혜월, 해안, 돈오, 만용, 법진, 무변, 현오, 요산, 현각, 보각, 혜문, 성담, 도암, 영각, 청공, 청운, 법화, 법륜, 연제, 일경, 홍운

◆ 수법손상좌

대웅, 무척, 보관, 무정, 도법, 혜현, 길상, 보리, 법연, 광명, 혜각, 광명, 혜인, 지관, 우성, 동담, 금조

초재	7월 15일 (음 5월 22일)	함안 실상사 대법당
이재	7월 22일 (음 5월 29일)	고성 실상사 대법당
삼재	7월 29일 (음 6월 7일)	고성 무척사 대법당
사재	8월 5일 (음 6월 14일)	고성 무척사 대법당
오재	8월 12일 (음 6월 21일)	안강 금강사 대법당
육재	8월 19일 (음 6월 28일)	울산 현불사 대법당
49재	8월 26일 (음 7월 5일)	칠곡 총본산 각황사 대법당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총본산 각황사에서 막재와 함께 우각당 도일선사 부도기념비 제막식 법회를 봉행합니다.

●문의처 : 010-8729-9345